

위험예측 모델부터 특약개발까지 보험업계, AI 활용 기술혁신 경쟁

ABL생명, 'AI OCR 솔루션' 탑재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더 빨라져
KB손보, 화재보험협회와 손잡고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 나서
한화생명, 3년간 청구서류 AI 분석
발병률 높은 주요3대암 특약 개발



보험업계가 사고보험금 지급, 위험 예측 모델 개발, 주요 암보험 특약 출시 등 다방면에서 AI 활용에 나서고 있다. /유토이미지

보험업계의 AI(인공지능) 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부터 위험 예측 및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산출까지 AI를 활용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AI 전문 업체인 애자일소다와 협업체 생명보험협회 최초로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에 'AI OCR 솔루션'을 탑재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지급받으려면 모바일·사이버 사고보험금 청구화면에서 질병분류코드, 병명 등을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이번 AI OCR 솔루션 탑재로 실시간 지급 조건 충족 시 고객이 업로드한 병원진단서 등의 이미지 속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입력돼 보험금이 고객의 계좌로 실시간 지급된다.

AI OCR 솔루션 탑재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 채널에서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령하고 AI OCR 스캔 시 자동으로

내용이 인식돼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AI OCR 솔루션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도 증가돼 고객에게 혁신적인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과 화재보험협회는 AI 기반의 위험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쳤다. 양사는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의 공동 개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기술의 상호 협력 ▲위험예측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 및 예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화재보험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위험

분석 데이터를 융합해 고도화된 AI 기반의 위험예측 모델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관리 및 예방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은 "KB손해보험과 화재보험협회가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신종 위험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산출에 AI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였다.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서류 약 500만건을 AI로 분석한 통계를 근거로 주요 3대암(위·간·폐) 특약을 지난 15일 출시했다.

AI 전문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손잡고 업계 최초 진료비 세부내역을 AI OCR로 분석했다. 답러닝을 통해 AI가 서류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게 해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통계 산출까지 AI를 활용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규특약은 AI솔루션이 적용된 당사만의 자체 통계 DB를 통해 고객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을 면밀히 관찰했다"며 "첫 사례로 발병률이 높은 주요 3대암(위·간·폐) 특약을 개발했고 추후 적용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질병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한화 건설부문 '3.3.3 안전 캠페인' 진행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근절과 3대

사고 60% 감축을 목표로 전 현장 임직원 및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는 '3.3.3 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3.3 안전 캠페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의 3대 사고 감축을 위해 ▲3초 룰(Rule)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활동이다. 한화 건설현장에서 '3.3.3 안전캠페인'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규제 프리 '화이트 존' 내달 선정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선도사업 후보지 적극 발굴 요청

토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화이트 존(공간혁신구역)'이 어디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을 2배 이내에서

완화해 준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과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중 통화량 5.7조 늘어... 9개월 연속 증가

2월 M2 3929.9조, M1 1217.7조
정기 예적금·주식형 펀드에 유입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인식에 정기예적금 가입이 늘고,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의 통화(M2)는 3929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증가했다.

M2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올해 1월 0.3%, 2월 0.1%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

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한달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예금금리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예적금 가입이 증가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증권도 6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금전신탁은 한달 전보다 9조2000억원 감소했다. 순발행이 이어지던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순상환되며 줄어든 영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머니마켓펀드(MMF)도 사회보장기구를 중심으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2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이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감소한 1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현금통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장기 현재 보유한 총주식은 14만500주로, 총 발행주식의 0.07%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기준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김기홍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매입을 단행,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김기홍 회장 등 JB금융 경영진 자사주 매입

JB금융그룹은 김기홍 회장과 경영진이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및 주주 가치 향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기홍 회장을 포함해 JB금융 경영진 8인 전원이 참여했다. 매입된 주식

은 총 4만5708주로, 금액은 약 5억9000만원 수준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 및 전략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주 가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매입에서 가장 많은 2만주를 매입했다. 김 회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광복 케이블 덕트 적용 CG.

/현대건설

현대건설, 아파트에 전기차 인프라 적용

'디에이치 대치'에 첫 통합 솔루션

현대건설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스마트 솔루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로이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성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전기차 이용량 확대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동주택 주

차장에 ▲광복 케이블 덕트 ▲스마트 배전반 등을 미리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및 구역을 자유롭게 증설토록 해 공간 효율성과 전력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고, 충전기 추가 설치 시 입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단지 내 충전기 위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펠루이를 시작으로 적용 현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